

### 1.27mm 초소형 기판 대 기판 코넥터 개발 골든코넥터(주)

골든코넥터(대표 윤여순)는 최근 국내업체 최초로 1.27mm 초소형 기판 대 기판 코넥터를 개발, 공급에 나섰다.

동사는 올해초 1억 3,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1.27mm 협피치 기판 대 기판 코넥터와 이를 양산할 수 있는 조립장비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골든코넥터는 광명공장에 월 1,500만편페어 용량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이달부터 국내 통신업체들

을 상대로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1.27mm 협피치 코넥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기존 핀페어당 평균 80에서 120원에 이르던 공급가격도 이번 국산화를 통해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이 제품은 터미널 구멍의 크기가 0.45φ로 기존의 2.0mm 제품의 0.6φ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양산체제를 갖추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환시켜 주는 반도체 칩으로 5~6종의 부품을 한데 묶어 제조원가를 크게 절감시킨 것이 특징이다.

동사는 키폰용 ASIC가 국산화됨에 따라 증소용량의 디지털 키폰 시스템 및 종합정보통신망(ISDN) 기능의 카드개발이 가능해져 키폰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동사는 3년동안 5억여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에 성공한 이번 ASIC를 국내업체에 공급,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시장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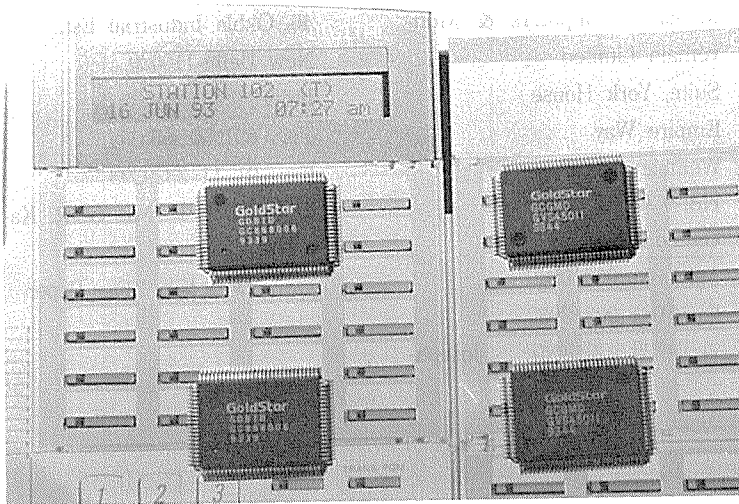
### ASIC(주문형 반도체) 2종 개발 금성통신(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디지털 키폰의 핵심부품인 ASIC(주문형 반도체) 2종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ASIC는 음성 애널로그신호를 디지털화된 펄스신호로 변조, 디지털 데이터 및 키폰 내부신호를 접속하거나

### 통합 리모콘 방식 조명/커튼 제어시스템 개발 금성통신(주)

이번에 개발한 조명/커튼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전력배선을 설치함으로써 배선, 배관비를 절감하였고 기기 어댑터 및 조명 어댑터를 기존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통합 리모콘으로 조명 및 커튼은



물론 가전기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작성이 가능하고 조명제어인 경우, 기존의 형질 커튼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커튼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전화선을 이용한 원격제어 및 예약제어로 방법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가정 자동화시스템이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정의 조명의 밝기 및 ON/OFF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무선 리모콘 기능, 분위기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제어하는 밝기 조절기능, 외출시 전화를 이용하여 조명 및 커튼, 가전기기등을 제어하여 방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 예약된 시간에 작동하는 예약제어기능, 조명제어인 경우, 청각장애자를 위해 전화음 착신 전등 지정으로 전등의 ON/OFF로 전화의 울림을 알 수 있는 전화음 착신 전등 기능 등이 장착된 경제적인 제품이다.

### 무선호출기「콜미」 시판 도신산업

도신산업(대표 함인화)이 통신기기 내수시장에 참여했다.

미국, 중국, 홍콩 등 해외수출에 주력해왔던 동사는 최근 슬립형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무선호출기를 개발, 통신기기 판매업체인 강성통신을 통해 콜미란 브랜드로 내수판매에 나섰다.

이 제품은 무선호출기의 고유

기능외에 전화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수화기를 든채로 오토 다이얼링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신된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원터치콜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또 전자통신연구소

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내년말까지 초슬립형 무선호출기도 개발,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극소형의 벡타이핀형과 목걸이형, 손목시계형 무선호출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 모니터공장 150인증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최근 구미의 모니터 공장이 ISO 인증을 획득, 기술력과 품질 보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됐다.

동사는 16일 모니터사업부장 김성흠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본사에서 가진 인증서 전달식에서 영국의 품질보증기관인 에스지एस(SGS-yarsley)로부터 ISO 9002 인증서를 받았다.

동사는 바이어들로부터 국제품

질보증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 인증획득 여부에 대한 문의와 요구가 많아지는 등 ISO 인증획득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팀을 구성, ISO 9000시리즈 중 생산과 설치의 품질보증모델인 ISO 9002 획득을 위한 품질보증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9인치부터 2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의 컬러모니터를 생산,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지역에 공



급하고 있는 대우전자는 올해 약 160만대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ISO 인증획득으로 모니터의 전반적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세계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물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탱크주의 실천의 일환으로 주력제품에 대해 각 공장별 추진팀을 구성, ISO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 전자렌지 공장에 이어 모니터 공장이 2번째로 획득하게 된 것이다.

### 입체냉장고 탱크 개발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는 세계 최초로 2번 3면 입체냉각방식을 적용, 기존 대형냉장고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대우 입체냉장고 탱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8년부터 1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상품화에 성공한 이 제품은 냉각팬이 1개뿐인 기존 제품과는 달리 냉동실과 냉장실에 냉각팬을 각각 독자적으로 부착, 냉장실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 냉동실 온도까지 낮춰야 하는 단점을 개선하고 냉동능력도 높였다. 또 기존 냉장고는 냉기가 뒷면 1군데에서 나오는데 반해 이제품은 냉기를 뒷면은 물론 좌우변면 등 3면 12군데에서 분출, 냉장실온도를 섭씨 2도(기존 4도)로 균일하게 유지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어 냉각속도가 3배, 식품보관기간을

2배정도 향상시켰다.

냉장실내 공기흐름을 이용, 성에를 없애주는 에어제로방식을 적용하여 성에제거시 온도가 올라가는 단점을 개선했으며 고효율 콤프레서를 부착, 소음크기도 국내 대형제품중 가장 적은 25데시벨 수준까지 줄였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가 적으면 서도 냉장고 사용면적은 기존의 78% 정도에서 90%로 늘릴수 있게 됐다고 대우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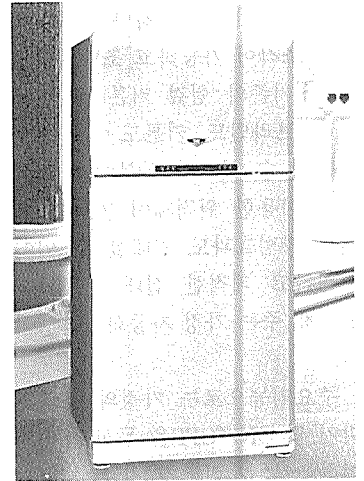
### TDX-10개량형 대용량 교환기 DX-3100개발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전자교환기 TDX-10의 개량형모델인 [DX-3100]을 개발하고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우통신이 이번에 개발한 DX-3100은 용량이 최대 12만회선으로 기존의 TDX-10보다 2만회선 가량 크고 가격이 회선당 25% 이상 저렴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설교환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제품은 TDX-10의 주요부품 27종을 주문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종전의 TDX-10보다 설치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모전력도 156KW에서 85KW로 45% 절감시켰다.

또한 가입자 선로 자동 감시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의 운



용·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것은 물론 기존의 TDX-10에 없는 프로세서간 유닛의 완전 이중화를 실현,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였다.

대우통신은 이 교환기를 수출 전략화한다는 방침아래 러시아 인증기관인 로니스(LONIS)에 인증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타타르공화국에 5만회선, 이란에 150만회선 이상 규모의 수출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또 이번에 개도국 수출용으로 최대 2,048회선 규모의 농어촌용 국설 교환기인 [DX-1100]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 시스템을 경제형 사설교환기(PABX)로 전환하여 사설교환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 고기능성 플라스틱 국내 첫개발 (주) 미원유화

미원그룹 계열의 (주)미원유화(대표 이덕림)는 국내 처음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복합재료 중 고부가가치 제품인 ABS/NYLON ALLOY(알로이) 복합 수지를 개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미원유화 울산공장 기술연구소 연구 5팀(팀장 박동수)이 지난 90년 3월부터 착수 3년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울산공장에 연 3,000t의 생산시설로 양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수지는 ABS와 나이론 수지를 특수가공(폴리마 알로이)기술을 통해 개발한것으로, ▲기존 나이론 수지의 최대 단점중 하나인 수축률을 제거하였으며, ▲상온에서 충격값이 선진국 ABS/NYLON ALLOY 수지의 10배 이상이고, ▲저하중시 내열특성이 12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부터 「HAN 8654」란 상품명으로 판매될 이 수지는 ABS 수지의 성형가공성, 치수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결정성 수지인 나이론의 열안정성, 내마모성, 내화학 약품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고기능성 플라스틱이다.

특히 착색성, 도금성, 내진동성 등의 뛰어난 특성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초소형 컴퓨터, 전자사전, 캠코더,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스포츠 용품, 의료기기 등 용도가 다양한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 수지 개발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약 1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성형업체는 필요 물량을 국내에서 조달 할 수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성형업체는 가격 및 품질상의 이점이 있는데, 가격은 미국제품보다 10~15% 저렴하며 일반 나이론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격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품질에 있어 일반 나이론 제품보다 성형가공성과 치수 안정성, 충격값 등 주요 물성에서 앞서며, 업체는 다른 기계 설치가 필요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린 PC 2개 모델 발표**  
**(주)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 이정식)는 10월 486SX와 DX 등 PC 2종에 그린 기능을 탑재하고 에너지스타 로고를 부착한 그린PC신제품 2종(모델명 TG 486G T20과 T40)을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EPA규정을 만족시키고 VESA로컬버스와 4~8MB의 기본 메모리, 210~420MB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128~256KB의 외부 캐시메모리를 지원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쉼 경우 전원 소비량이 30W 이하로 떨어지고 다시 사용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전원이 들어온다.

또 238핀의 팬티엄 오버드라이브 소켓을 기본으로 장착, 팬티엄

까지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VESA로컬 비디오 보드를 주기판에 장착, 초당 최대 132MB를 처리할 수 있고 하드웨어 가속기능을 덧붙였으며 DX의 경우 2MB의 비디오 메모리를 채택, 1,280×1,024의 해상도 및 1,677만 컬러를 제공하는 등 비디오 기능이 우수하다.

**17" 산업용 CDT 생산**  
**삼성전관 (주)**

삼성전관(윤종용)은 3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대형 산업용 컬러 브라운관을 개발완료하고 15인치 제품을 지난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데 이어 17인치도 이달부터 본격 생산한다고 밝혔다.

삼성전관은 특히 이번에 양산에 나선 자사의 CDT가 기존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모니터 업계의 국제 경쟁력강화는 물론 1천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전관은 15,17인치 CDT를 월 10만대씩 생산, 우선 국내업체에 공급하고 21인치 제품은 올초까지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업체들은 현재 60%에 머물고 있는 컬러모니터의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 올릴수가 있어 완전 국산대체가 가능하게 됐다.

**영상기기 문자표시용 핵심 IC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각종 영상기기의 스크린에 문자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성능 IC의 개발에 성공, 본격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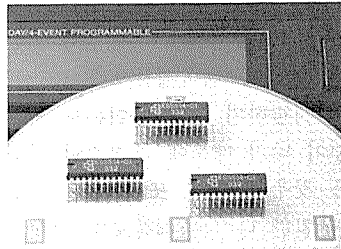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IC는 TV, VCR, 캠코더 등의 영상기기에서 화면에 각종문자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칩으로, 최대 240문자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글자의 크기도 4×4배까지 자유롭게 확대가 가능하다.

이 IC는 한개의 칩속에 문자 발생 기능 외에도 동기신호 검출 및 자동 주파수 조정 기능 등이 내장된 고집적 제품으로, 외부 부품 절감 및 기기 소형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번에 개발된 IC는 기존 제품이 2개 이상의 칩과 관련 부품으로 구성된 데 비해, 단 1개의 칩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아직 세계 시장에 상품화 되지 않은 고성능 IC이다.

또한 이 제품은 간단한 코드(Code) 변경만으로도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상태로 칩 기능의 조절이 가능하며, NTSC, PAL, SECAM 등 세계 어느 지역의 방송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문자발생용 IC 개발로 국내 영상기기 제조업

체의 원가 절감 및 기기의 소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물론, 관련 부품의 수입 대체와 수출 확대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 최초,**  
**“마케팅 연수소” 설립**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유통 시장 개방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 수용,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영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체로는 최초로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한 “마케팅 연수소”가 지난해 12월 28일, 김광호 사장과 대리점 경영자, 관련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설립한 마케팅 연수소는 도심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기존 연수소와는 달리 교육과 영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내최초의 도심형 연수소로 영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천후 영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총 11개층 1,700여평 규모의 선진국형 마케팅 연수소이다.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

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마케팅 연수소에서는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전담하는 사내 영업인력 ◆대리점 사장, 종업원 ◆인판 인력 ◆고객 등을 주 교육 대상으로 매년 11만 여명 이상을 각종 실습 및 체험 교육 위주의 교육을 통해 영업전문가로 양성해 영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고객 만족 차원을 넘어서 고객 만족을 통한 새로운 고객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연수소 등에서 하고 있는 강의 중심의 연수방식에서 탈피, ▶전문교수진 4~5명으로 구성된 전임 교수제 도입 ▶고객 만족 사례 개발 ▶선진기업의 마케팅 사례 연구 ▶제품의 완벽한 작동 실습 ▶현장감을 살린 점포 실습실 및 ▶고객 창출형 응대법 등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실 영업 중심으로 진행해 영업활동의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업계최초 MD시판**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90년대 후반 퍼스널 디지털 오디오 제품으로 가장 각광받을 MD의 국내보급에 들어간다. MD는 12Cm CD(콤팩트 디스크)의 절반인 6.4Cm크기의 미니디스크(MD: MD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일하게 명명함)를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초소형 오디오로 휴대와 음질 등 편리성과 기능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 차세

대 오디오이다.

동사가 자체개발해 시판하는 MD는 디지털 압축기술(AIRAC)을 응용해 6.4cm의 MD광디스크에 74분 분량의 디지털 신호를 기록, 재생하는 차세대 오디오로 무게 500g인 초경량 제품이다.

동사는 MD 제품의 제안자인 일본 소니사와 91년 기술계약을 체결, 상품화 길을 열었으며 93년 3월 독자 모델의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개발 이후 지금까지 △레이저로 신호를 읽어내는 MD PICK-UP △광자기 기록 재생기술 △DECK MECHANISM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올 11월 소니사 부품의 70% 크기인 세계최소형의 MD PICK-UP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동사가 이번 시판하는 MD는 부품 국산화율이 50%로서 테크 메카니즘 등은 자체개발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여름 시판할 2차 모델부터 현재 양산단계에 들어간 세계 최소형 MD PICK-UP 등 핵심부품을 채용해 부품 국산화율을 95%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가격, 기술, 품질에서 MD의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MD 개발을 위해 80억원의 개발비와 5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해왔으며 오디오 중 MD를 주력으로 육성기 위해 내년부터 광소프트사업팀에서 MD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작공급하는 등 플레이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공급에 의한 내수시장 수요창출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품의 종류로는 동작주파수 채널변경이 가능한 BCC5M모델과 공장출하시 채널이 고정된 BCF5M모델 2가지가 있다.

용도로는 무인운반차량, 크레인, 지게차, 산업로봇 등의 충돌방지용을 비롯하여 안전사고예방차원의 감지센서로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

### 중국에 주문형 반도체 설계 센터 운영 아남반도체 설계 (주)

아남반도체 설계는 중국 북경에 ASIC(주문형반도체)설계센터를 설립하는 등 반도체설계 분야의 해외영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중국 반도체시장 진출을 추진해 온 이 회사는 중국 과학원과 합작, 최근 북경에 ASIC설계센터를 설립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자사의 엔지니어를 북경에 상주시켜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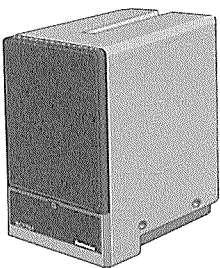
또 기존 기술 제휴 업체와 합작 회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의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설계수주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사 표준 제품개발에 주력, 그린PC와 소프트웨어 한글 액셀레이터 칩 출시를 계기로 내년 1·4분기중 4~5종의 제품을 추가로 개발해 생산할 계획이다.

### 포트센서 출시 (주) 오토닉스

본 제품은 무인 운반차량의 안전제어장치용 충돌방지센서(일명 장애물 감지센서)로 최대 검출거리가 5m로서, 0.5m에서 5m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검출거리를 2단

계(1단: 원거리설정, 2단: 근거리설정)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설정거리이내의 물체감지시 1단⇒주의, 2단⇒정지신호를 출력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한정된 공간내에서 여러대의 충돌방지센서가 동시에 설치, 운용될 경우에도 센서간의 상호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본 센서의 동작주파수를 최대 16채널까지 임의로 변경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답스위치에 의한 4단계의 검출영역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IP65(IEC규격)를 만족하는 방수구조로 되어 있다.



**이집트에 복사기 수출  
(주) 코리아 제록스**

코리아제록스(주) (대표 : 문대원)가 이집트에 94년부터 2년동안 모두 600만달러어치의 복사기를 수출한다.

코리아제록스는 서울에서 제록스이집트사와 「제록스5254」 복사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부터 2년동안 해마다 300만달러어치씩 모두 600만달러어치의 복사기를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키로 한 복사기는 제록스5254는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해 생산중인 「5200」 시리즈중 하나로 일명 「타이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제록스 이집트는 제록스그룹내에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 및 동구지역을 담당하는 제품생산 거점으로 이 지역의 복사기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코리아제록스는 이집트 현지생산과 수출을 위해 기술지원과 부품지원과 부품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중국에 컬러 모니터 공장 설립  
한국컴퓨터 (주)**

한국컴퓨터(대표 : 한홍섭)가 중국 천진에 컬러모니터와 뱅킹터미널 생산공장을 짓는다.

한국컴퓨터는 중국 천진시에 있는 천진공단에 7억원정도를 투입, 땅 1만평을 구입해 올 하반기 중에 공장을 건설해 오는 95년부터 컬러모니터를 중심으로 뱅킹터미널·포스용단말기·프린터등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진출에 앞서 구미공장의 생산라인을 다시 구축해 94년 4월경부터 국내에서도 컬러모니터를 생산, 자사브랜드로 수출하고 중국 금융시장 공략을 위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염가형 뱅킹터미널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대 486 컴퓨터 겨울방학 맞이  
사은 대특매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산업(대표 : 정몽헌)은 겨울방학철을 맞아 자사의 486컴퓨터에 대한 사은 대특매를 1월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실시한다.

이번 사은 대특매는 솔로몬 메리트 425SX, 433DX, 450DX2 및 솔로몬 파워 466DX2 등 4개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솔로몬 메리트 425SX는 판매가격보다 16

%할인된 124만원에, 433DX의 경우 18%할인된 158만원에, 450DX2의 경우 16%할인된 188만원에, 솔로몬파워 466DX2의 경우 26%할인된 258만원에 각각 판매에 들어간다.

동사는 이번 사은 대특매 기간 중에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없이 최장 17개월까지 할부 구매혜택을 주고 보안경, 디스켓 컨테이너, 키스킨, 손목보호대, 서지프로텍터 등의 기념품을 무료 제공하며, 동사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OA전 과정 및 겨울방학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은대특매 기간중에는 TV수신카드, 사운드/팩스/모뎀카드도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은 대특매에 들어가는 솔로몬 메리트 486시리즈는 미국 인텔사의 i80486SX/25Mhz, I80486 DX/33MHz, I80486DX2/50MHz의 고성능 CPU를 탑재하고 있으며, 쥘(ZIF : Zero Insertion Force)방식의 오버드 라이브 소켓을 장착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CPU를 교체, 성능을 486DX/33MH부터 DX2/50MHz, DX2/66MHz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